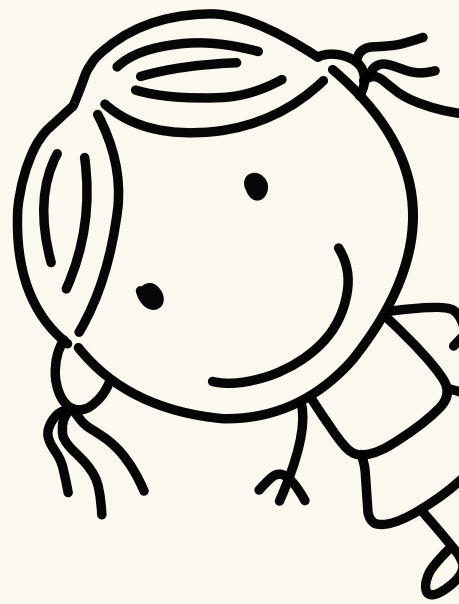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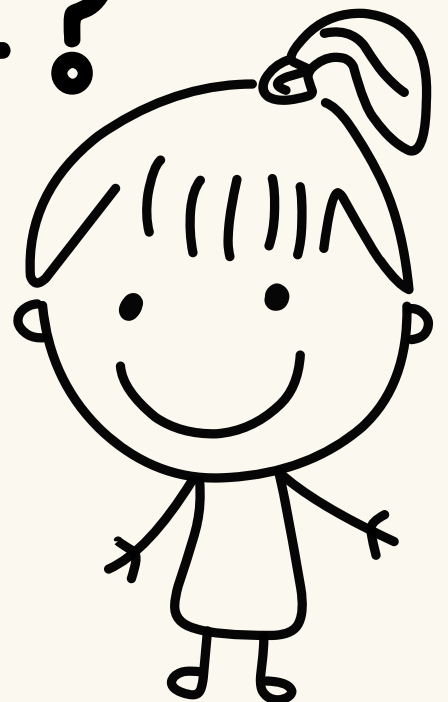


Q.



자녀가 그림책을  
자기 마음대로  
너무 자유롭게만  
보려고 할 때
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**책장을 막 넘겨도,  
책 읽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.**



**\* 자녀가 책장을 빨리 넘기는 것은  
이야기를 방해하려는 행동이 아니라,  
그 장면이 지금 가장 눈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.**

자녀에게는  
‘순서’보다 ‘관심’이 먼저입니다.



어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지만,  
영유아는 마음이 머무는 장면부터 책을 만납니다.  
그 선택 자체가 읽기의 시작입니다.

**읽고 싶은 부분만 펼쳐도 괜찮습니다.**



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거나, 특정 그림만 고르는 것은  
영유아가 자기 방식으로  
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

# 부모는 흐름을 ‘되돌리기’보다 ‘따라가기’를 해도 됩니다.



- \* “처음부터 읽자” 대신 “이 장면이 좋구나”,  
“여기가 마음에 들었구나”라고 말해 주세요.
- 영유아의 읽기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

# 자유롭게 읽는 경험은 책을 가까이하게 만듭니다.



책을 자유롭게 넘기고 고르는 경험 속에서  
영유아는 책을 안전하게 즐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.

\*  
중요한 것은 ‘어떻게 읽었는지’  
가 아니라 ‘함께 했는지’입니다.



책의 전체 내용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

영유아에게 남는 것은 이야기보다  
부모와 함께 책을 펼쳤던 편안한 기억입니다.